

제 26 호

제 6 부활주일

1973. 5. 27

# 순정이

발행인 김 영 일  
 인쇄인 범 석 규  
 주 간 조 성 호  
 편 집 한 상 갑

## 【강 료】

### 새신하는 교회 I

김 종 택 신부

#### 처음

바티칸 공의회에서 볼 수 있었던 심의와 토론, 교부들 간의 의견차이 등등, 또는 매스컴 이용에 따른 사실 과장등으로 신자들과 성직자까지도 불안해하고 당황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금까지 교회는 시대의 파도 속에서도 엄연히 서 있는 금자탑이요, 변화한 수 없는 원리를 강력하게 옹호하는 유일한 존재로 알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교리와 교회법은 신앙 조목과 같이 결코 변경할 수 없으며, 바로 이점이 가톨릭의 고유의 성격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는 교회내의 모든 이가 모든 사항을 문제로 삼고 토의하고 있다. 모든 사항을 변동시켜야 될 것으로 여기고 있다.

#### 교회법의 쇄신

교회법과 이에 직결된 신자생활과의 새신할 점(可變性)과 그대로 지켜나갈 점(不變性)이 있는가를 밝히고 싶다.

그래서 먼저 하느님이 직접 주신 신법(神法)과 인정법(人定法)인 교회법 간의 구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신법은 절대로 변화할 수 없는 것이요, 교회법은 원칙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것으로서 새로운 역사 상황이 요구될 때 교회는 이를 변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교회는 절성사를 철폐한다던지 결혼의 불가해소성을 해소한다던지 하는 권능은 없다. 이런 규정은 신적이어서 변화할 수 없다. 교회는 스스로가 깨끗한 신앙 의식중에 이런 근본적인 규정 전체에 관해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확신을 전승해 왔다.

그러나 일방 변화를 허락할 수 있는 인정법적인 교회법이 있다. 이런 인정법은 가톨릭 신자에게 부과된 의무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예를 들면 혼인시에 사제가 주례를 서야 한다던지, 영성체 전에 한시간 단식해야 된다던지 하는 등이다. 이런 종류의 규정을 바꿀 때 교회는 자기에게 맡겨진 불변의 권리와 의무에 의해서, 자체의 구원을 위해서 시대적 필요에 따라 감행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한국 교회에서도 성체 앞에서 장례대신 머리와 허리를 숙이는 절로 대처했고, 영성할 때 사제의 침(唾液)을 사용하는 것을 폐지하였다. 이런 변경은 합법적이지만 신자들 생활과 실천에 영향을 주어 동요되고 당황케 할 수도 있다. 어떤 신자는 교회의 인정법중 하

나라도 변경한다던 마치 하느님과 교회의 본질 그 자체가 변해버린 양으로 느껴 일체의 신뢰감마저 상실하는 것 같이 느끼는 모양이다.

과거에도 교회법과 생활양식은 여러가지로 변경되어 왔지만 극히 드문 일이어서 큰 충격은 받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에 와서는 역사적으로 모든 차원에 있어서 가속도로 빨라져서 정식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변화가 광대해져 감으로 교회도 자기 직책상 지금까지 하지 않던 일도 해야 되고, 시대에 적응해서 자기 본래의 자세를 창조해 내야 한다. 즉 교회는 변화되는 면에서 변혁의 때와 시행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공의회가 이러한 의무를 자기 자신에게 지운다면 그것은 곧 스스로가 친숙해진 것이나 유용한 것을 희생한다는 뜻이다. 혹시 이런 시도가 실험의 한계를 벗어나는 일이 있더라도, 먼 장래에 거기에서 무엇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더라도 용감히 새로운 시도를 할 필요가 있다. 과도기에 처해 있는 시대는 무거운 인내와 강한 마음으로 신경과민에 빠지지 말고 전진해야 된다. 건물을 개축하려면 쉰던 종던 간에 먼지를 들러쓰는 불쾌한 일이 있더라도 냉정히 대해야 된다.

인간법은 옛것과 새것을 막론하고 결점없는 좋은 것만 일수는 없는 옛시대의 법은, 많은 경우 그 시대의 지배자에게 편리하게 되었고, 모든 사람의 편리를 충분히 배려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교회법 중에서도 하느님한테서 오는 불가변의 규범(법)은 교회가 믿는 가르침과 교의(教義)에 속하며 결코 변화되지 않는다. 이에 반해 교회법 중 사람이 만든 인정법은 신법이 아니기때문에 신앙과 교도적이 직접 관여할 대상이 아니다. 도리어 그는 교회의 통치권이 지목하는 순종의 대상이며, 그 타당성의 좋고 나쁨을 고려할 대상이다. 이런 종류의 교회법의 가변, 불변의 원리와 교회신앙에 관한 가르침,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은 당연하다고 말 아니할 수 없다. (덕진 주임 신부)

### \* 이 주간의 성경 \*

- 28(월) 독서 (사도행전 16: 11-15, 성서 P. 304)  
복음 (요 한 15: 26-16: 4, 성서 P. 247)
- 29(화) 독서 (사도행전 16: 22-34, 성서 P. 305)  
복음 (요 한 16: 5-11, 성서 P. 248)
- 30(수) 독서 (사도행전 17: 15.22-18: 1, 성서 P. 307)  
복음 (요 한 16: 12-15, 성서 P. 248)
- 31(목) ※ 성모의 성녀 엘리사벳 방문 축일  
독서 (소 포 3: 14-18, )  
복음 (루 가 1: 39-56, 성서 P. 123)
- 1 (금) 독서 (사도행전 18: 9-18, 성서 P. 309)  
복음 (요 한 16: 20-23, 성서 P. 249)
- 2 (토) 독서 (사도행전 18: 23-28, 성서 P. 310)  
복음 (요 한 16: 23-28, 성서 P. 249)

□성소문제□



사제 양성 후원회를

보고만 있을 것인가?

이제 사제 양성 후원회를 창립함에 있어 우리는 첫째 그들의 성화를 위하여 사제 성소 개발을 위한 열렬한 기도와, 둘째, 사제 양성을 위한 재정적 후원으로 영예의 회원이 되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우리의 사제요 바로 나의 사제 한분이 탄생되기까지는 막대한 예산과 금액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외국 은인들의 원조에 의지해서 우리의 사제를 양성해 왔습니다. 언제까지나 남에게 의지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 은인들에게 감사하면서 우리의 사제를 우리의 힘으로 양성합니다.

우리 교구 대부분의 신학생들은 가정 경제가 용이치 못한 실정입니다. 거기에서 성소 문제 자체에 어떠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이 과연 타산 지식 일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령에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 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둡니다."

또 우리의 어려운 현실을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계속 하노라면 때가 올 것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해야 하는 우리에게 사제양성 후원 문제는 바로 하느님 사업의 일익을 담당하는 거룩한 일임을 다시한번 생각 합니다.

여러분의 후원 하심에 대하여 하느님께서서는 기꺼이 받아 주실 것입니다. (필립비 4. 11)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여러분께서 하신 선행에 대해서는 주님과 함께 기뻐하십시오. 아무 격정도 하지 마십시오(필립비 4. 4~6)라고 위로해 주십시오.

교형 자매 여러분!  
여러분께서 적극 참여해 주실 본 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합니다.

- 1) 사제 성소를 위해 자주 기도한다.
- 2) 사제 성소 증가 위한 선행과 희생을 한다.
- 3) 지망자를 물색하고 성소 지도 신부에게 연락한다
- 4) 매월 일정액 (다소 불문)의 회비를 납입한다.
- 5) 회원 증가를 위해 노력한다.

사제 양성 후원 사업은 우리 모두의 지상 과제입니다. 1973년은 사제 양성 후원 사업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해입니다. 한마음 한 뜻으로 일치합시다.

성모 성월의 필독서

비통의 어머니

요기순 신부 지음

※각종 양복, 양장지 도산대※

신우라사

서울은행 전주 지점 옆  
(전화 2212 7071)  
김범구(빈첸시오)

□전례 해설□

※ 이 주일의 미사 ※

□입당송 기쁨에 넘치는 목소리로 전파하며 들려주어라. 땅의 구변에 이르기까지 전파하며 주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셨다 하라. 알렐루야.

□제1독서 (사도행전 10 : 25-26, 34-35, 44-48, 성서 P. 289)

여러 민족들에게 성신의 은총이 내렸다.

□총계송 땅끝마다 우리 주의 구원하심을 모두가 우러러 보았도다. 온 세상아, 주님 앞에 덩실덩실 춤추어라. 즐기어라, 기뻐하라, 고에 맞춰 노래하라. 알렐루야.

□제2독서 (요한 1서 4 : 7-10, 성서 P. 548)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을 잘 들으라. 그러면 내 아버지도 너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너에게 가리라. 알렐루야.

□복음 (요한 15 : 9-17, 성서 P. 246)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신자들의 기도

1. 이방인에게까지도 성령을 보내시는 주여, 우리로 하여금 항상 진리의 성령의 비추심을 올바로 따르게 인도하십시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2. 사랑으로 가르치시는 주여, 우리에게 부쳐주신 당신 사랑의 불이 꺼지지 않고 오래토록 타오르게 도와주소서. ◎

3. 주여, 당신의 젊은 사도들인 청소년들이 악의 유혹을 용감히 이기고 당신의 뜻을 올바로 알아듣게 비추어 주소서. ◎

■ 맺음기도 주여 비오니, 저희들의 조그마한 정성들을 모아 당신의 나라를 이 세상에 퍼는 일꾼을 찾고 길러 보겠다는 교구의 사제 양성 후원 사업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도와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 아멘

□부활 감사송

□영성체송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켜라. 내 아버지께 청한다면 다른 협조자를 너희에게 보내시리라, 그는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알렐루야.

성서와 성물은

섬 바오로 서원

중앙성당 옆 (전화 7398)

※ 농약, 씨앗, 농기구 ※

전북농약사

박태수(벨라도)

전동 3가 148. 전화 6090

매곡교 비거리에서 남부배차장으로 가는 길목 (오성주장 앞)

\* 대학의광장

\* 잔디밭



### 한 마디만 더

—청소년의 말을 보내면서—

김 영 구 신부

(먼저 미안하다는 말씀 드리고)

(가) 청년은 인생의 봄이다.

청년의 속에는 생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모든 본능의 꽃이 피는 때이다. 시원한 모양을 내고 싶은 때이기도 하다. 더구나 일정한 연령에 달하면, 성적 향락을 하고 싶은 때다.

청춘의 본능적 소원은 향락이라도 할 수 밖에 없다. 진실로 어떤 정도의 향락은 청년의 특권이라고도 할만한 것이다. 그렇지만 인생에게는 향락의 본능적 간구가 있는 동시에, 사회에 대한 의무감도 또한 본능적으로 존재한다. 이 의무감을 향락에 대하여 봉사라고 하자. 향락의 본능과 봉사의 의무감이 혼연히 조화한다면, 게서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이 두가지는 서로 모순한다. 여기에 빈민이 생기고, 육적 고투(肉的苦闘)가 생기는 것이다. (애, 3장 27)

(나) 청년들이여, 이것쯤은 상식적으로 알아두고.

청년들이여! 청년의 심리, 즉 그들의 가슴에 품은 소원, 심한 심적 고투, 번덕스러움, 빈틈없는 사고, 강한 감수성, 내적인 분규, 실망, 인생에 대한 불안, 애정의 갈구(渴求)같은 것에 대해서 청년은 모르고 있다.

청년은 처녀의 마음속에서 은근히 새어나오는 것, 곧 눈이 밝은 사람이라면, 넉넉히 알아볼 수 있는 것도 알아 보지 못하고, 다만 외관과 가장 뚜렷한 특징만을 보는데 불과하다. 처녀가 울기를 잘하고, 화장을 자주하며 몸가짐에 주의를 기울이고, 유행에 민감하다는 것을 청년이 어찌 보지 못했겠는가! 그러나 그의 지식은 여기에 끝나고 만다. 자신이 단순하기 때문에, 여자의 심리가 복잡하다는 것을 눈치 채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청년은 그렇게도 사랑을 잘 속삭일줄 알지 않아요?>

하고 여자들이 반대할지라도 모른다.

사실 그렇기는 하다. 그러나 이것도 십사속고한 결과가 아니고, 본능이 그렇게 시키는 것이다. 사실 일정한 태도를 취하는 것과 본능대로 행동을 하게 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동 취양과 같은 색마나 여자의 심리의 기미(機微)를 파악하고 있는 호사가(好事家)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남자는, 여성들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디모테 2장 22)

※ 필자들 어찌 알리오! 나는 T.V를 보다 취재한 것 여성들, 미안합니다.

다) 한가지만 더, 친구를 잘 사귀시라.

경박하고 웃줄거리며, 보기에 민망스러운 정도의 걸음걸이라든가, 몸짓을 하는, 부패한 청년들! (청년이 라는 고상한 이름을 쓰는것 마치 아까울지만)과 우정을 맺고, 그러한 패거리의 한 사람이 되어, 자기들 댁에는 사나운 행동을 한답시고 번잡한 길거리에서, 오고가는 사람들을 귀찮게 하며, 잔약한 여자에게 행패 부리고 으쓱대는 무리들이 있다. 지꺼리는 화제의 내용이란 하나도 쓸것 없고, 그러면서도 모험적인 행동을 한다고 거리를 좁다하고 활개치며 거니는 젊은이들이 있다. 그런 부류가 한 둘 아니고 점점, 더 늘어만 가는 사회는 얼마나 불행한 사회이랴!

그런데 그런 이들이 많아져만 가고 있으니, 참으로 딱하기만한 사회상이요, 이 세태이다. 그러면 그들이 왜 그러한 행동을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아니, 만족하는 것일까?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으로는 곧 여성들에게 깊은 인상을 박아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또는 호감을 사는 일인줄 알기 때문이다. 사실상 그런것을 좋아하는 여성, 그것을 좋게 말하여 사내답다고 하는 어리석은 여성들도 많으니까, 그들은 그런것을 하면서도 활개치는 것이다. 그리하여 점점, 사회의 쟁패는 늘어가고, 참으로 사내다운 사람은 점점, 줄어들어가게 마련이다.

이성의 지배를 받는 청년들은, 똑바로 사회를 알고, 벗들과 사귀는 일을 잘 해야 할 때는 왔다.

(디모테후 2장 22)

#### 가톨릭 센터 프로그램 안내 (관장 신부 박 진량, 총무 안 지은, 전 3498)

28일 (월) 외국 문화 교실 (불어, 오후 5~6시)  
29일 (화) 외국 문화교실 (독어)

31일 (목) 외국 문화 교실 (독어)  
외국 문화 교실 (불어, 오후 5~6시)  
6월 1일 (금) 외국 문화 교실 (독어)

\* 축 부 활 \*



### 스타 사진관

장 남 수(바오로)

전주시 교사동 1가 오거리동 동아어관앞 전화 6094

\* 축 부 활 \*

### 동남 샤프

T V  
냉장고  
선풍기

전주대리점

전화 8121

여요셉(운창)

전주 시내 6개 본당 소식

1. 전주교 전주 교구 4지구장 배 쟁탈 체육대회 (6월 3일 오전 9시, 혜성중·고 교정)
  - ① 참가자격 : 전주 시내 본당에 교직을 가진 만 20세 이상의 교우 (교교생 제외)
  - ②종 목 : 축구, 배구, 계주, 주머니 넣기
2. 남부 지구 울뜨레아 (5월 28일<월> 오후 8시반, 성심학교) -복자, 서학동, 전동 꾸르실리스타참 북부 지구 울뜨레아(5월28일<월> 오후 8시 반, 중앙성당) -노송동, 덕진. 중앙 꾸르실리스타 참석바람
3. 기도합니다. 김진소 신부님 5월 24일 교통사고로 입원 가로중. 이수현 신부님 5월 25일 군중 신부로 입대.

(소) (식)

(중앙) (전화 2651/3874) 주임 신부 안복진 사도 회장 김종준

1. 사도회 6월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후)
  2. 성심 부녀회 총회 (6월 1일, 어머니 미사후)
  3. 6월 2일에 세례받은 분께 축하드립니다.
  4. 봄 판공 성사  
아직도 성사 안보신 분은 3주일 이내에 끝냅니다.
  5. 성모의 밤 (성가례와 목주 지참)
    - 5. 28(월) 밤 8시반 -주일학교 학생
    - 5. 29(화) " " -중·고등학교 학생
    - 5. 30(수) " " -각 신심단체
    - 5. 31(목) " " -전교우(중학행사), 각 단체별 꽃다발(또는 화분)과 초 봉헌이 있습니다.
- ※ 신부님 배분을 특별히 모셔 강론을 들으며, 로사리 오 기도와 성체 강복이 있습니다.
6. 견진 교리 (6. 4 <월>부터 매일 밤 8시반) 교리 불참자는 견진 자격을 부여치 않겠음.
  7. 신용조합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후, 성당)  
※ 경품 놀이도 있습니다.  
□ 지난 주일 봉헌금 32,359원, 감사합니다.

(노송동) (전화 7032) 주임 신부 함승현 사도 회장 이태영

1. 사도회 월례회 (오늘 10시미사후)
2. 형제회 월례회 (다음 주일에)
3. 예비신자 교리 (6월 10일부터)
4. 성모의 밤 (5월 31일<목> 저녁 8시) 교우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5. 6월 16일에 견진 성사 (희망자 등록 바람)  
□ 지난 주일 봉헌금 12,621원, 감사합니다.

(덕진) (전화 8082) 주임 신부 김종택 사도 회장 송영기

1. 성모의 밤 (5월 31일<목> 8시 밤 미사후) 목주와 대조를 준비하시어 성모상 앞으로 나오셔요
2. 금주간 미사 시간 변경 (매일 밤 8시) 견진 특별 교리(5월 28, 29일, 6월 1일)가 밤미사후 에 있음.
3. 첫 영성체 (6월 3일 공식미사때) 금주간에도 교리반에 잘 내보내 주시죠.
4. 부녀부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후)
5. 푸른 양지화 임원 개선  
회 장-이병희(스테파노) 부회장-이병남(마르코) 김기순(제시리아)  
□ 지난 주일 봉헌금 4,915원, 감사합니다.

☆학생복 전문☆

금성 양복점

교우들에게 특별 봉사

김 경 조(루수)

전주시 교동 2가 69번지

(전동성당에서 오목대로 가는길-경찰학교 뒤)

(복자) (전화 5238) 주임 신부 오기순 사도 회장 조성호

1. 하느님께 감사 드립니다.  
본당 신부님께서 지난 22일 퇴원하시어 본당에 오셨습니다. 빨리 회복되시어 완쾌하시도록 한마음으로 일치합니다.
2. 고백 성사는 공식미사 전후에만 신부님 건강때문에 주일 공식미사 전후에만 성사를 보셔야겠습니다.
3. 재속 형제회 월례회 (오늘 오후 2시반, 전동)  
□ 지난 주일성미 (2말 4되) 누계 145말 5되 5후 지난 주일 봉헌금 11,615원, 감사합니다.

(서학동) (전화 2276)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 회장 유낙철

1. 신용 조합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후)
2. 레지오 마리에 옥의 행사 연기  
4지구 체육 대회 관계로 6월 10일로 연기합니다.
3. 교무금 완납에 적극 협조합니다.
4. 사제 양성 후원기금 완납자에 감사드립니다.  
☆ 축 결혼 ☆  
신랑 김백초군과 신부 김영례 양(5. 27, 오후 2시)  
신랑 이정오군과 신부 이정애 양(5. 30, 오후 3시)  
□ 지난 주일 봉헌금 10,002원, 감사합니다.

(전동) (전화 3222) 주임 신부 범석규 사도 회장 송영선

1. 방지거 삼회 월례회 (오늘 오후 2시반)
2. 유아 영세 (다음 주일 공식미사후) 사무장님께 미리 등록 하시기 바랍니다.
3. 주일학교 출석에 관심 가지시다. 부모님들은 어린이들의 종교 교육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4. 교무금 완납하여 본당 실립 도움시다. 자진 신입하신 교무금을 하루속히 완납합니다.
5. 사제양성 후원기금 불입 요망. 미루지 마시고 매월 제날자에 불입합니다.
6. 미사 시간 안내  
주일 새벽미사 오전 5시반, 어린이 미사 오전 9시 공식미사 오전 10시, 저녁미사 오후 8시  
평일 새벽미사 오전 5시반(월, 화, 목, 금) 저녁미사 오후 8시(수, 토)  
□ 애령회 특별 헌금 5,906원  
지난 주일 봉헌금 28,126원, 감사합니다.

최 씨 관 집

장의차·꽃상여·입관  
입관부속 일체 구비

★ 교우들에게 특별 염가 봉사 ★

최 병 화(그레고리오)

전주 남부 시장 B동 87호(전화 6691 교환85번)

☆역전 보 광 출 판 사 인쇄☆